

재현 패러다임의 전환과 기호학적 고찰*

조창연**

【 차 례 】

- I. 들어가면서
- II. 재현에 대한 이론적 배경
- III. 재현에 대한 전통적 기호학의 접근
- IV. 재현에 대한 뇌·인지기호학적 접근
- V.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재현과 탈재현의 문제를 기호학적 문제로 접근하면서 문제의 핵심을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설명한다. 전통적인 기호학에서는 재현을 형이상학적인 패러다임에 토대를 두고 모방이나 모사를 통해서 설명한다. 반면에 후기구조의 기호학은 탈재현을 감성이나 느낌에 토대를 두고 상사나 현전을 통해서 설명한다. 전자는 대상과 기호 간에 외적 유사성을, 그리고 후자는 내적 유사성을 강조한다. 재현의 패러다임이 인식론적으로 전환되면서 재현은 인지적 표상과 신경학적 비표상의 차원으로 나타난다. 인지적 표상은 범주나 패턴을 통한 상징화로 재현되고 신경학적 비표상은 분산된 벡터 가치와 이들의 창발적인 네트워크로 재현된다. 이러한 재현 패러다임의 변화는 대상과 기호 간의 유사성 모색이 외적에서 내적으로의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연구 결과는 다양한 현실의 재현 전략의 구축에 효과적인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열쇠어 : 재현, 유사성, 미메시스, 재현의 기호학, 재현 도식, 신경학적 재현

* 이 논문은 2018년 4월 28일 서강대에서 열렸던 한국기호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초안을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다. 논문을 완성하는데 도움을 주신 토론자와 익명의 심사위원, 그리고 질의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 서원대학교 광고홍보학과교수

I. 들어가면서

오늘날 우리 삶이 실재적 토대를 상실한 채 점차로 가상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실은 증강현실로 보강되고 나아가서 가상적 현실로 대체되면서 우리 삶의 실제적인 원본이 가짜인 모조본으로 대체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우리의 중요한 재현 수단이었던 언어기호조차도 구조적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이런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언어기호가 대상을 상실하면서 기의와 기표가 괴리되고 현실에 내린 닳이 붕괴되면서 삶과 현실을 단단하게 이어주던 기호의 역할이 해체된 것이다. 그 결과 가상과 현실의 구분이 차츰 불투명하게 되고, 이로써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궁극적으로는 모의현실화를 우려하게 되었다.¹⁾ 여기서 모의적 현실은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현실을 가리킨다. 혹자는 이런 현실을 ‘매트릭스적 실존(the existence of matrix)’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 모든 현실적 혼돈은 궁극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을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문제, 즉 재현의 문제와 직결된다.

이러한 재현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세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철학, 기호학, 그리고 예술과 매체”(Nöth 2003, 9)가 그것이다.²⁾ 그러나 예술과 미디어 영역에서 재현의 문제는 사라졌거나 또는 사라지고 있는 준위기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 영역에서의 재현의 문제는 특히 담론 진실성의 토대가 의문시 되는데서 비롯된다. 그것은 사건과 사실을 옮기는 담론들의 진실성 기반이 상실되면서 사실성 여부가 의문시되고, 그 결과 옮겨진 담론들이 구심점이 없이 괴리되고 있는 점에서 그렇다. 이 와중

1) 이 현상을 재현의 위기상황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학제간의 연구가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뇌스(Nöth 2003), 이도흠(2004), 그리고 이주영(2005)을 참조.

2) 여기서 예술은 문학(literature)과 미술(arts)을 함축하는 용어를 가리킨다. 이하의 논의에서는 직접적으로 인용한 부분에 한하여 출처와 쪽수를 밝히고 그 외의 부분들은 편의상 출처만을 표기한다.

에 미디어가 조작되고 이미지가 날조될 수 있으면서 현실과 가상, 그리고 환상의 경계는 점점 흐려지고 이로부터 재현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혹자는 재현의 위기라고 말하기도 한다. 좀 더 부연하면 언어기호와 시각기호가 재현의 틀을 벗어나서 그 자체로 파편화되고 지시대상과 어떤 규정적인 관계도 갖지 않음으로써 기의를 상실하고 단지 기호의 껍데기뿐인 기표만이 유동하는 단순한 기호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기표들은 의미자체를 붕괴시키기 때문에 이미지와 언어가 대상을 재현하는 힘을 상실하고 결국 텍스트도 실재를 재현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재현의 문제는 기호학적으로 보면 기호가 자기 지시적이 되면서 좀 더 재귀적인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재현하는 방식이 변화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재현이란 것은 대상과 기호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규정되는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재현 변화의 중심에는 기호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의 관점은 이들을 매개하는 방식의 시대적 특성에 따라서 다른 것이다. 오늘날의 철학적 관점인 후기구조주의와 해체주의적 사유는 기존의 전통적인 재현관을 비판적으로 본다. 즉 전통적 재현관으로는 새로운 현실의 실재를 나타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재현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그 결과 본질이나 진리의 원형을 재현하는 존재론의 관점을 벗어나 탈재현 혹은 탈재현적인 것을 추구함으로써 이러한 재현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시도로 나타난다(신승환, 2004).

재현의 패러다임이 변화되면 재현의 수단도 바뀌게 된다. 재현은 생명체의 생존 본능이 개념적으로 표출된 것이며 진화적으로 획득한 것으로 (Benjamin, 최성만 옮김, 2008) 유사성을 생산하는 최고의 능력인 모방에 기반한다. 이 능력은 단순히 유사성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능력으로 모방이 아니라 표현이다. 재현 패러다임은 이처럼 생명체의 본질인 모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에 진화적으로 특징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현실이 증강현실과 가상현실로 변화되고 나아가서 모의현실로 진행되는 상황에

서 인간의 본성인 모방을 기반으로 재현적 관점이 어떻게 변화되고 이것이 재현 수단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재현에 대한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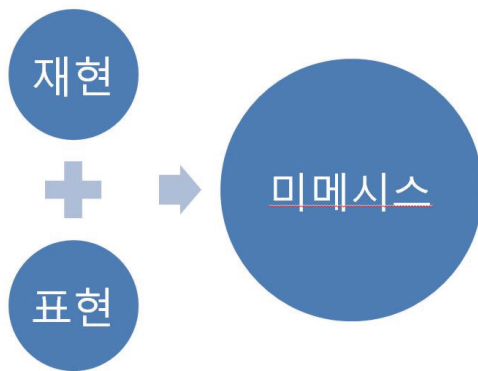
1. 재현의 정의와 개념

재현(Representation)이란 용어는 라틴어 레프레젠탈치오(Representatio)에서 비롯되는데 이 말의 뜻은 다시 현전하게 하는 것, 즉 다시-드러냄(드러냄)을 의미한다(채운, 2009). 그러나 이러한 다시-드러냄은 재현의 원본과 모사물 사이에는 극복될 수 없는 간극이 존재함을 묵시적으로 암시한다. 재현이란 말은 철학, 예술 등의 여러 영역에서 사용되지만 특히 예술의 영역에서는 이미지와 회화, 그리고 조각과 판화, 또는 연극작품 등에서 주로 사용되며 ‘시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사용된다. 이 경우 재현은 원본과 유사성을 갖는 이미지의 제시를 뜻하는데, 모방(Imitatio)과 알레고리(Allegorie), 그리고 상징(Symbol) 등의 여러 의미를 함축한다(Barck, 2003). 이러한 재현의 개념들은 여러 문화권에서 유사한 의미를 갖고 끊임없이 변해왔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용어들로 표현된다. 독일어권에서 재현은 모방(Nachahmung), 표현이나 묘사(Darstellung), 그리고 묘사(Abbildung) 등으로 쓰였고, 영어권에서 모방(Imitation), 표현(expression)이나 묘사, 그리고 복제 혹은 묘사(replication) 등으로 사용되었다.

재현의 개념적 뿌리는 그리스 말인 미메시스(μίμησις, Mimesis)에서 비롯된다. 미메시스는 원래 음악과 무용을 지칭하기 위하여 사용되었는데 그 의미는 단순히 같은 것을 반복해서 만드는 모방보다는 재현이나 표현의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미메시스는 음악과 무용의 매재(medium)에 의한 재현과 표현으로 정의 될 수 있다(Koller, 1954). 다시 말하면 원래의 미메시스라는 말은 외적인 것의 모방

적 재현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재현, 재현적 표현까지도 함축하고 있는 포괄적인 용어인 것이다(그림 1 참조). 미메시스가 외적인 실재의 재현을 의미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5세기경으로 보이는데, 이를 기반으로 소크라테스는 사물의 외관을 복제한다는 뜻으로 미메시스를 사용하면서 이를 회화나 조각에도 적용한다. 그 후에 그의 제자인 플라톤은 미메시스를 이데아와 현실의 관계를 규정하는 철학 원리로 적용하여 조형예술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시 등 거의 전체 예술에 광범위하게 적용시킨다.

미메시스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개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흉내 내기(Miming)가 있다. 이것은 말, 노래, 무용으로 동물이나 인간을 흉내 냄으로써 직접적으로 그 모습이나 행위를 재현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모방(imitation)이 있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실제로 흉내 내지 않고도 따라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복제(Replication)를 들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이나 사물의 모습을 물질적으로 형태가 똑같이 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Else, 1958).



[그림 1] 미메시스의 개념(Koller 1954, pp.15~18 참조)

따라서 재현된다는 것은 모방되고 흉내내지고 복제된다는 것이고, 원본을 전제하며 이것이 매개체를 통하여 매개되어 표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재현은 원본을 매개하고 전달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매개 대상이 생각이든 실제적인 것이든 간에 이를 다시 나타내려면 매개가 필요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구체화하고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매개체가 필요하다. 다양한 매개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일반적인 것이 기호이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각기호와 문자기호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결국 재현이란 모방의 형식을 통하여 기호로 실재를 어떻게 매개하고 전달하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모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재현에 대한 해석은 달라지고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기호학을 기반으로 하는 기호·철학의 문제와 연관된다.

2. 재현의 기호학적 토대

재현에 대한 접근 방법은 기호학적으로 다음의 두 가지의 큰 틀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철학적 기호학의 관점과 언어(기호)학적 관점이 그것이다(그림 2). 언어(기호)학의 관점은 소쉬르를 근간으로 하여 야콥슨, 엘름슬레우, 로트만 등으로 이어지는데 언어학에서 발전된 방식과 원리들을 기반으로 재현을 파악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외부적 대상은 개념이나 상(像)으로 머리에 존재하고 있다고 전제되며 이것이 언어기호로 어떻게 재현되는가가 관건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는 실재 대상이 재현되기보다는 이미 우리의 머리 속에 개념화 혹은 이미지화된 대상이 언어기호로 다시 재현되는 것이다. 재현된 것의 의미는 언어기호를 사용하는 사회·문화적 관습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에 대하여 철학적 기호학의 관점은 존재론, 현상학이론, 인식론, 그리고 인식론을 세분화하여 비의식적 인식 작용을 다루는 구성적 실재론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관점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프레게, 그리고 퍼스³⁾로 이어지며 언어와 같이 특정한 형태의 기호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호 일반 이론을 토대로 수행된다(Klaus/Buhr, 1972). 철학적 기호학의 관점은 지시대상의 재현 문제를 기호와 그 대상과의 관계로 파악하는데, 다양한 관점들은 대상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각들의 차이를 나타낸다. 존재론적 관점을 토대로 한 재현은 대상의 원형을 기반으로 기호적 재현을 언제나 객관적인 사실로 파악한다. 기호는 존재하는 원형을 모사하고 매개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하는 현실은 객관적이고 참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관점은 플라톤의 경우에도 나타난다. 그에 의하면 이데아의 모방으로서의 재현된 이데아는 구체적인 사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써 구체적인 사물들의 모태가 되고, 이데아가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사물은 이를 모방함으로써 존재적 가치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Platon, 천병희 역, 2013). 따라서 진정한 모방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무가치한 사물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실재 그 자체의 기반이 되는 관념을 모방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림 2] 재현에 대한 접근 방법들

- 3) 어떤 철학자를 배타적으로 어떤 특정한 학문적 성향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은 다양한 영역들의 인접 연구들과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논의에서의 구분은 대상과 기호의 관계를 재현의 관계로 파악하고 이를 기호학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편의상 연구 가설적으로 설정한 것임을 밝힌다.

반면에, 인식론은 지시대상을 파악하는데 기호사용 주체의 주관적인 관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기호가 모사를 통하여 재현하는 기호적 현실은 존재론의 그것과 다르게 된다. 기호가 대상의 원형을 매개하지만 이것은 기호를 사용하는 주체에 의해서 재귀적으로 처리되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파악하는 지시대상의 실체는 정신적 구성물로 나타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를 보면, 그는 실체를 질료와 형상으로 구성된 개별적인 사물로 간주하는데, 여기서 형상은 개별적인 사물에 내재하는 것이고, 이 형상의 모방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실체의 본질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사적 인식으로 어떤 사물이 감각적으로 대상화되고 우리에게 인식되면 그 실체의 형상도 우리 마음속에 관념으로 갖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개별적 사물에 존재하는 형상을 모방(imitation)함으로써 사물을 인식하고 재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모방(mimesis)한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 것으로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하는 점이다. 인간은 모방을 가장 잘 하는 동물이며 이를 통하여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또한 모든 인간은 태어 날 때부터 모방된 것에 쾌감을 느낀다. 이것은 봄으로써 배우는 쾌감으로 이를 기반으로 각 사물이 무엇인지를 추측하여 알 수 있게 된다.”

(Arisoteles, 천병희 옮김, 2002, 37쪽)

상이한 이 두 관점들이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모사적 토대이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기호관은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데, 기호가 대상의 모사물인 개념을 상징하고 있는 점에서 기호 의미가 모사적임을 함축한다. 인식론이 의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비의식적 인식에 기반한 재현을 설명하는데 의미있는 시사점을 주는 것이 구성적 실재론(constructive realism)이다(Thagard, 김미선 옮김, 2011). 이 접근법은 실재가 마음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 뇌의 정보(기호)처리 과정을 통해서 구성된다는 것이다. 실재하는

대상은 뇌에 의해서 비의식적이고 비표상적으로 처리되어 새로운 실재를 재현하기 때문이다.⁴⁾

현상학적 관점은 탈재현적 현상을 파악하는 이론적 토대이다. 존재론이 해체되면서 후기구조 기호학의 탈재현적 관점이 등장하는데 이 관점에 의하면 기호의 지시대상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대신하여 의미를 담지하지 않은 또 다른 기호의 기표가 유사 지시대상로서 기능하는데 이것은 기호의 현상적 측면으로 나타난다. 이로써 기호의 외관, 표층, 표현, 표상 등은 관찰 대상으로서 물질성을 갖는 기호의 현상으로 파악되고, 기호는 대상을 재현하지 않고 현상적으로 드러내어, 즉 현전하여 대상이 된다.

III. 재현에 대한 전통적 기호학의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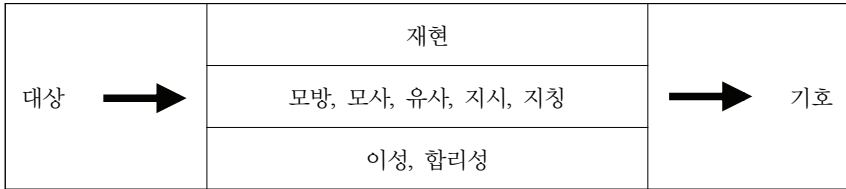
1. 기호와 재현

재현은 지시대상, 즉 원상(original Image)을 모사적으로 매개하는데 이를 위한 가장 일반적인 매개 도구가 기호(Sign)인 것이다. 여기서 모사는 재현과 탈재현의 특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재현은 공통적으로 지시적 대상을 전제로 하고, 기호, 더 정확히는 기의가 대상의 원형을 모사나 모방함으로써 성립된다. 반면에 탈재현은 일반적으로 지시대상과 기호가 외적 모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모사를 기반으로 한다. 내적 모사의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의 시각예술에서 추상미술의 경우이다. 여기서 대상은 기호와 외적인 모방 관계가 있지 않고 내적인 모사 관계에 놓여있다. 외면적으로 같지는 않지만 내면적으로 유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음에서는 소쉬르와 퍼스,⁵⁾ 그리고 콰브리치와 굿맨의

4) 뇌가 외부적 대상을 어떻게 처리하고 재귀적으로 재현하고 구성적으로 표현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는 이 논의 4장에서 다룬다.

사례를 통하여 전통적 재현론의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본다(표 1 참조).

[표 1] 전통 기호학의 재현 도식



소쉬르에 의하면 언어기호는 사물을 명칭으로 직접 재현하는 것이 아니다. 기의와 기표의 결합으로 대상을 재현하는 것이다. 여기서 기의는 개념이고 기표는 청각영상으로 이들이 결합해서 기호가 되는 것이다. 대상의 원형은 개념으로 인식되고 기표인 소리(청각상)를 통하여 재현된다. 여기서 기의는 대상의 원형이 인식론적으로 개념화 된 것이다. 따라서 언어기호는 뇌 속의 이미 인식된 대상에 대한 상(개념)과 소리가 결합하여 개념화된 대상을 재현한다. 따라서 재현된 상은 대상을 직접적으로 모사한 것이 아니고 이미 인식론적으로 재현된 기의를 통하여 재현된 것이다(Saussure, 최승언 역, 1990).

이에 반하여 퍼스는 일반 기호의 재현의 문제를 다룬다. 그는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이 주체에 의해서 어떻게 기호적으로 재현되는지를 분석하면서, 지시대상의 재현 문제를 표현체인 기호와 그 대상체, 그리고 해석체의 관계로 파악한다. 여기서 기호는 존재하는 대상을 인식론적으로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즉 기호에 의해서 대상이 인식론적으로 재현되는 것이다. 이 재현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해석체이다. 이 해석체의 추론 능력은 대상을 의미론적으로 재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5) 퍼스의 학문적 편력은 방대하여 기호학, 논리학, 현상학, 규범과학, 형이상학 등에 퍼져있다. 따라서 퍼스를 전통기호학의 범주에만 한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므로 이 논의는 대상과 기호의 재현 관계의 논의와 관련하여 그 범주를 한정할 것임을 밝힌다.

(Peirce, 1931-1958). 퍼스에 의하면 대상과 기호의 관계를 재현하는 방식은 도상기호를 기반으로 하는 도상적 재현, 지표기호를 기반으로 하는 지표적 재현, 그리고 상징기호를 기반으로 하는 상징적 재현으로 구분된다(신항식, 2005).

도상적 재현은 도상성⁶⁾을 기반으로 대상을 그대로 묘사하는 재현방식이다. 여기서 형상은 원상(Vorbild)을 재현하는 일종의 기호이며 이러한 재현의 방식은 형상과 원상간의 유사성에 기초한다. 이 방법은 기호가 대상과 동일한 성질을 함께 나누거나 공유하기 때문에 대상과 유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속의 붉은 장미(시각기호)는 형상이나 색깔 등이 실제 장미와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림속의 붉은 장미는 실제 장미의 이미지가 된다(CP 2.277). 이것이 이미지 재현이다. 도상을 닮은 대상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아서 기호로 해석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미지는 지각되고 이를 기반으로 파악되는 내재적 성격에 의해서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은 그 대상도 재현이 가능하게 된다(CP 2.447). 도상기호의 기본적인 요소들의 관계가 사물의 기본 요소들의 관계와 같으면 그 도상기호는 그 대상과 유사하게 되는데 특정 지역에 대한 지도상이 이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이것을 다이어그램(diagram)이라고 한다(CP 2.277). 이에 반하여 은유적 재현은 어떤 기호의 재현적 성격이 다른 기호의 재현적 성격과 유사한 형태로 재현되는 경우를 나타낸다. 은유적 재현은 대상과 유사함을 가진 한 사물(예를 들면, 내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물(예를 들면, 호수)의 재현적 성격(예를 들면, 내 마음은 호수다)을 재현

6) 도상성은 이미지와 도식(diagram) 그리고 은유(metaphor)로 구성된다. 따라서 도상기호는 그 자체가 완벽한 기호로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이미지나 도형, 혹은 은유 중에서 내용적으로 하나의 형태에 좀 더 도상적 성격을 부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미지는 도상성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세부적인 기호로 볼 수 있다. 도상기호만을 실제적으로 추출하라고 하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도상기호는 분류 상 기호라고 해도 실제로 기호라고 할 수 없고, 어떤 형태로 기능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미지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도상기호는 필수적으로 지표나 상징과 함께 나타나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도상기호로서만 존재하는 기호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박연규, 2004).

(예를 들면, 내 마음은 호수같이 넓고 깊어서 모든 것을 담아낸다)함으로써 두 사물간의 관계에서 유사성을 보여준다. 이 경우에 마음과 호수는 특성상 서로 다르고 유사하지 않지만 마음은 호수를, 호수는 마음을 재현함으로써 의미의 유사성 재현이 가능하게 된다.

기호는 도상성이나 은유성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지표성(CP 2.248)에 의한 지표적 재현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 인접성은 유사성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접성은 기호와 대상 사이에서 직접적인 연속성을 지각한다는 의미에서 지시적(referential)으로 특징되고 인과적으로 연관되어 있다(CP 2.283). 이런 지표에 의한 재현을 지표적 재현이라고 한다. 지표적 재현 방법은 한 눈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대상의 존재를 그 환유⁷⁾적 유사성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표적 재현은 재현 대상에 대한 어떤 정보도 우리에게 제공할 수 없지만 인과 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서 대상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토대로서 역할을 한다.

유사성과 인접성뿐만 아니라 관습적이거나 습관적 혹은 법칙 내지는 기질적 관계에 의해서 어떤 대상을 재현 할 수 있다. 이것을 상징적 재현이라고 한다. 이런 형식의 재현에서 상징은 표상체로서 그것이 재현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혹은 적합한지 여부는 오직 습관이나 기질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상징은 기호의 선택을 결정하는 동기와 무관하고 그것이 그런 식으로 사용되고 이해된다는 사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CP 2.307). 상징은 오로지 법칙이나 습관을 통해서 작동하며 그 자체가 일반적인 유형으로 그렇게 해석되고 사용됨으로써 기호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상징은 지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시할 수 있게 되고, 도상을 포함하기 때문에 의미를 생성할 수 있는 것이다(CP 2.293). 이런 의미에서 상징적 재현도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 어떤 대상을 그 대상의 속성과 밀접하게 관계되는 다른 대상을 통해서 재현하는 방법은 수사법 환유와 유사하다. 이런 의미에서 재현하려는 대상을 단지 보여주고 드러내는 지표적 특성은 환유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소쉬르나 퍼스에 비하여 고프리치나 굿맨은 시각기호의 재현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고프리치는 가시적 세계의 이미지가 보내는 메시지가 시각기호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기반으로 시각 이미지를 분석한다. 기호화된 이미지는 자연을 모방한 자연기호처럼 기능하지만 한편으로는 언어와 같은 상징기호로 기능하기 때문에 시각 이미지의 분석이 가능한 것이다(Gombrich, 1960/2002). 시각 이미지는 대상을 모사적으로 재현하기 때문에 자연기호, 혹은 도상(icon)이라고 하는데, 문화가 다르더라도 비교적 비슷하기 때문에 자연기호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20세기에는 자연기호가 아니라 상징기호를 시각기호로 사용하는 경향이 재현론에서 부각된다(Gombrich, 1960/2002). 상징은 임의로 만들어진 기호로 기호와 대상 간에 어떤 연관이나 유사성 없이 약속에 의해만 들어진다. 시각기호로서 시각 이미지가 상징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어떤 이미지는 사실적으로 묘사되기보다는 대개 관습적인 선이나 형태를 통해서 표현된다. 이로서 재현된 것과 실재의 관계에서 이미지가 하나의 기호처럼 작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재현된 이미지를 보고 이 이미지가 실재적 대상을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랜 관습이다. 이에 따라서 그림 속의 이미지들은 마치 사진이나 삽화처럼 실재나 상상 속의 현실을 반영(재현)한 것이라고 습관적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지는 대상을 묘사한 재현 상이 아니고 일종의 표본인 경우가 많다. 이 표본을 그릴 때에 도식이 필요한데, 이 경우 이미지는 자연기호가 아니라 일종의 상징기호처럼 기능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서 전통적 재현론을 비판적으로 보고 시각적 재현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 연구자가 굿맨이다. 그는 이미지를 기호로 파악한다. 시각 이미지는 표본과 도식에 의해 언어기호처럼 기호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기호가 갖는 상징 기능은 문자나 이미지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매우 일반적인 특성을 띤다. 따라서 상당히 사실적인 초상화와 산문적인 문구도 추상적이고 비유적인 기호들 못지않게 훌륭한 기호들이며, 또한 상당히 상징

적인 것으로 파악될 수 있는 것이다(Goodman, 1968/2003). 상징 기호는 글자와 단어, 그리고 텍스트뿐만 아니라 그림과 도해, 그리고 지도와 모형 등 그 밖의 더 많은 것들 모두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문자나 이미지를 포괄하며 이런 의미에서 시각 이미지는 언어와 같은 재현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회화적 재현의 특성은 무엇보다도 유사성의 문제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점에서 언어기호와 차별화된다. 일반적으로 재현은 “A가 눈에 띄게 B를 닮았고 그 경우에만 A는 B를 재현한다” 혹은 “A는 B를 닮은 정도에서 B를 재현한다.” (Goodman, 1968/2003: 3)인 경우에 성립하지만, 이 유사성을 재현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삼는 것은 재현의 충분조건이 되지 못한다. 유사적 관계를 재현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전제한다면, A가 B와 유사하면 그 만큼 B는 A와 유사하여야 한다는 명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따라서 A가 B를 재현하면 B는 A를 재현하여야 한다는 명제를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것을 실제의 문제에 적용해 보면 명제의 역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모방이나 모사를 재현의 조건으로 삼기보다는 ‘지시’나 ‘지칭’이 재현의 성립에 더 특징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기호론적 입장에서는 닮음이 재현의 필요조건도 충분조건도 아니고 대상을 재현하기 위해서 그림은 그 대상의 기호여야하며 그것을 지시하거나(refer) 지칭하여야(denote) 하는 것이다(Goodman, 1968/2003).

2. 탈재현과 기호

기존의 모사(모방)적 재현 이론은 지시대상과 그것의 모방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간주한다. 이런 모사적 재현 이론의 기반이 흔들리면서 탈재현 이론이 나타난다. 탈재현 이론은 기호가 지시대상과의 연결점의 이성적 토대를 상실하면서 기호의 의미가 증발하고 기호의 껍데기만 남는데서 비롯된다. 이로서 기호들의 전통적인 역할인 존재와 인식의 연결이 붕괴된다. 그렇다고 기호와 지시대상과의

연결이 모두 상실된 것은 아니다. 기호의 의미를 고정시키고 획일화시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형이상학적 전제가 해체된 것 일 뿐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시 대상과 기호의 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등장한다. 이러한 시도들의 주된 특징은 감성을 기반으로 양자를 연결하려는 것이다. 즉 기호와 지시대상을 합리성과 이성에 기반한 모사적 재현의 관점이 아니라 감성을 기반으로 하는 감성적 모사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기호와 대상의 관계는 모사적 재현의 시각으로 보면 탈재현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적 유사성을 갖는 것이다. 여기서 내적 유사성은 내적 정서나 내면성, 정신성, 관념이 지시대상의 기호적 표현의 내면에 유사하게 흐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내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시대상의 재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외적 유사성에 근거한 재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난다. 다음에서 이와 관련된 몇몇 사례들을 푸코, 데리다, 그리고 들뢰즈를 중심으로 살펴본다(표 2 참조).

[표 2] 후기구조 기호학의 탈재현의 도식

| | | |
|------|------------------------|------|
| 대상 → | 탈재현 | → 기호 |
| | 상사, 현전, 비감각적 유사성, 알레고리 | |
| | 감성, 느낌 | |

푸코는 상사 개념을 기반으로 탈재현을 파악한다. 그에 의하면 기호는 지시대상의 상실로 인하여 탈재현적인 기표만으로 구성되고, 따라서 기호는 기표의 무한한 복제로 나타난다. 이 복제는 원본과 비슷하지만 원본을 전제하지 않은 시각기호의 복사물로 나타난다. 이때 시각기호와 지시대상인 복사물과의 관계를 푸코는 ‘상사’(similitude)로 부른다. 이 상사의 개념은 ‘유사’(resemblance)와 대비되는 탈재현의 시각적 본질을 나타내는데,

유사는 원본과 복제 사이의 닮음의 (매개)관계를 뜻하고, 상사는 복제와 복제 사이의 닮음 관계를 의미한다. 유사성은 원본을 전제로 하지만, 상사는 원본을 꼭 필요로 하지 않는다. 유사는 재현의 토대이며, 재현은 유사성을 만든다. 상사는 반복에 쓰이며, 반복은 상사를 기반으로 한다. 유사는 원형을 기반으로 하며 또한 그 원형을 토대로 정돈된다. 이런 의미에서 상사는 비슷한 것으로의 무한한 가역적인 관계로서의 “시물라크르를 순환시키는 것이다.”(Foucault, 김현 옮김, 1995, 73) 여기서 시물라크르는 실재를 닮았으나 실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미지를 가리킨다. 유사성은 원본과 복제의 일치를 요구하지만 상사는 원본이 없는 복제들 간의 ‘유희’를 나타낸다. 푸코는 이 상사를 기반으로 약간씩 차이를 보이면서 무한히 반복되는 닮은 기호들의 ‘유희’를 탈재현의 특징으로 지적한다.

상사에서 닮음의 관계는 매개적 관점에서 보면 재매개적으로 특징된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대상과 모사적 재현 관계를 통해서 모사적 특성을 갖는 기호가 탄생되는 매개의 단계를 거치지만 이 기호가 의미를 상실하면서 기표들로 구성된 복사물로 전환되고 이것들이 상사적 관계를 통하여 다시 기호와 결합되는 재매개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데리다도 통념상의 모방내지 사실주의적 재현을 거부하고 사물 자체 모습의 현전을 통하여 재현의 대체를 모색한다. 그는 재현을 스스로 생성하는 자연의 움직임, 즉 그리스적 의미의 미메시스로 설명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텍스트와 기호의 소통, 그리고 현전과 부재의 유희를 통하여 표명되는 인간 자유의 표현으로 확장한다(Derrida, 1975, 이주영, 2005 재인용). 따라서 재현은 모방이라는 의미를 상실하면서 원본의 재현이 아니라 재현의 과정과 운동, 생성과 사건으로 특징된다. 데리다는 기존의 모방대상은 우선적으로 형이상학을 전제한다고 보고 이를 해체(Déconstruction)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에 의하면 텍스트의 미메시스는 근원적인 모델이 없이 존재하며, 현전과 부재의 유희 속에서 지시대상은 인간적 자유이고 이것의 표현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

호는 모방해야 할 지시대상인 원형을 상실하고 더 이상 그것을 재현하지 않는다. 지시대상인 원형이 존재하지 않으면 기호의 의미를 일의적이고 최종적으로 해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호의 의미에 대한 해석 가능성은 무한히 열리게 되고 또한 결코 개념화될 수 없게 된다. 데리다는 이러한 전통적 재현을 해체함으로써 풍부한 의미를 고정시키고 획일화하는 형이상학의 전제를 해체한다. 이를 기반으로 그는 지속적인 해석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되는 기호의 유희와 자유를 옹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호학적으로 보면 데리다의 현전은 기호의 재매개 과정으로 설명될 수 있다. 1차적인 모사적 재현을 통해서 생성된 텍스트들이 현전과 부재의 유희 속에서 의미를 상실하고 미메시스를 기반으로 명확히 표명되는 본질적인 인간 자유의 표현을 재매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들뢰즈(G. Deleuze)는 회화가 본질적으로 재현이 아니라 현전을 보여준다고 여긴다. 이것은 회화를 구성하는 시각기호가 모사적 재현과는 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는 동일자로 환원되지 않는 차이를 재현과 연결하면서 부단히 생성하는 것을 포착하려고 한다. 즉 감각적 사유와 감성적 느낌을 통하여 구상도 아니고 추상도 아닌 형상(*figure*)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전통적 재현의 방식과 다른 유사성을 추구한다(Deleuze, 1991/1999). 이 방법은 재현된 대상이 원본과 닮지 않았지만 닮은 느낌을 주면서 형상을 추구하는데 이로써 시각기호는 실재를 오히려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즉 시각기호는 대상을 모사적으로 재현하는 매개의 단계를 넘어서 매개된 대상에 대한 새로운 형상을 재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들뢰즈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회화는 재현아래서 재현을 넘어 직접 현전(*présence*)을 추출하는 것이다.”(Deleuze, 1981/1995, 84) 여기서 시각기호의 임무는 원본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재매개를 통하여 리얼리티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상사, 데리다의 미메시스, 현전 등과 같은 개념은 탈재현의 특징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접근법들의 특징은 공통적으로 닮음 혹은 유사성을 이성적 형이상학적 재현 방법으로 접근하기 어려우므로 감성 혹은 느낌의 관점에서 지시대상과 연결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시대상과 기호의 탈재현적 관계를 극복하는 또 다른 방안은 비감각적 유사성(unsinnliche Ähnlichkeit)이다. 이것은 언어기호의 초재현 기능을 통해서 기호의 탈재현성의 극복 가능성을 제시한다. 언어의 유사성이 그것인데 이것은 언어기호로 표현할 수 없는 것에 접근하면서 원초적 언어의 의미를 재현하는 역할을 한다(Benjamin, 1977/2008). 사물의 이름은 언어의 원초적 형태에 기반 하는데 사물과 (언어)기호적 명칭 사이에는 유사성과 교감의 관계만이 있을 뿐 논리적이고 의미적인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의 재현은 주어진 대상을 복제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붙잡을 수 없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언어기호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탈재현적 지시대상을 재현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비감각적 유사성은 시각기호의 탈재현성의 문제에도 적용된다. 시각기호의 탈재현성은 알레고리라는 형상화 방식으로 이해된다. 알레고리는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인 것의 형상을 빌려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것은 가시적으로 묘사할 수 없는 추상적 관념을 눈에 보이는 대상의 형태로 나타낸다. 즉 눈에 보이는 것을 묘사적으로 매개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알레고리에 의해서 묘사된 것은 그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묘사된 것을 넘어 어떤 것을 상징적으로 재매개함으로써 재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로서 재현된 것과 그 의미하는 바는 공통적으로 시각적으로 명백한 것이 아니라 의미상으로 명백한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탈재현적 방식은 감각적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내용을 기호의 재매개를 통하여 암시하거나 상기시키는 역할을 주로 함으로써 고전적 재현방식과는 현격한 대조를 이룬다.

IV. 재현에 대한 뇌·인지기호학적 접근

재현에 대한 논의는 존재론적 관점인가 인식론적 관점인가에 따라서 접근 방식이 달라진다. 우리가 우리 밖에 무엇인가 존재하는 것을 기반으로 재현을 접근하면 전자의 관점이고,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인식을 통하여 재현된다는 것이 후자의 관점이다. 그렇기에 존재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만큼 파악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구성적 실재론(constructive realism)은 우리 밖에 존재하는 무엇이 있지만 우리 자신의 생물학적 조건 안에서만 이러한 것이 파악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실재는 우리의 마음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우리가 파악한 실재는 뇌를 통해서 파악된 또 하나의 새로운 실재인 것이다(Thagard, 김미선 옮김, 2011). 그러기에 비의식적이고 그런 점에서 의식에 기반하는 인식론과 차별화된다. 뇌·인지기호학은 이러한 구성적 실재론을 기반으로 재현 현상을 기호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1. 인지적 표상

인지적 표상은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들과 모방이나 모사에 기반한 상징적 재현 관계를 갖는다. 감각기관은 모사적 재현 관계를 통하여 일차적으로 외부 대상과 우리를 연결한다. 이것은 감각기관이 외부 대상을 존재론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 재현은 외부의 실재 대상이 우리 안으로 모사적으로 수용되는 것을 뜻하지만 물론 이 경우에 외부의 대상체가 그대로 모사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관을 통해서 감지된 이러한 생생한 모든 감각의 속성들은 뇌의 감각질에 담겨지고, 이것들은 특정한 감각들과 관련되어 감각 범주를 대표하는 대표 감각으로 전환된다. 그런 다음에 이러한 대표 감각은 모사와 감각의 범주화를 기반으로 상징화되고 인지⁸⁾적 처리 과정을 거쳐서 표상화 된다.

표상은 의식 작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표상은 “실제 대상이 그대로 우리의 머리 속에 들어옴으로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범주나 패턴을 기반으로) 실제 대상을 어떤 상징이나 다른 형태로 재(再)표현(재현)해서”(Johnson-Laird, 1988, 28), 즉 추상화하여 처리함으로써 나타난다. 따라서 표상된 것은 외부의 대상 자체가 아니라 인지적으로 ‘다시(Re-)나타난(Presentation)’ 것이며, 재현의 변형으로 우리 의식의 내용이 된다. 즉 실제의 대상이 아니라 인지를 기반으로 다시 나타나서 추상화된 내용이 우리 의식 속에서 상징화된 것이 표상이다. 이러한 인지적 표상 과정에서 기호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세미오시스는 정신적 조작(mental Operations)의 프로세스를 특징짓는다(Nöth 2000).

인지적 표상은 외재적 표상과 내재적 표상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전통적인 표상으로 상징적 표상(Symbolic Representation)이라고도 한다. 상징적 표상에서 상징은 명확히 구분되면서 동일시되는 단위로서 ‘무엇인가를 대신하는 것’이며, 그 표상은 지시체의 모사로 재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Palmer, 1978과 Goodman, 1968 참조). 상징적 표상에서 인지는 상징들의 집합 조직으로 구성되며 구문론적으로 특징되는데(Goodman, 1968과 Jorna, 1989 참조), ‘무엇으로서의 표상’으로 나타난다(Goodman, 1973, pp. 38-42). 따라서 상징적 표상은 기술적(descriptive)으로 서술, 모델, 영상기호의 체계 등의 토대가 된다. 또한 이 표상은 지시체를 전혀 갖지 않고 단지 잠재적 지시체(potential references)를 함축하기도 한다(Smythe, 1990, p.49). 이 경우는 내재적 표상과 관련되며 상징과 대상의

8) 인지(cognition)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인지는 ‘감각 및 지각’을 제외한 거의 모든 뇌의 정신 활동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쓰여 왔다. 인지는 또한 인식(awareness)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인식은 다소 수동적 수용과정으로 앞의 과정을 가리킨다. 이에 반하여 인지는 문제 해결, 말하기, 의지 표출 등의 능동적인 지적 과정들뿐만 아니라 또한 감정적 앎, 학습, 그리고 신체감각-운동의 통제 등의 측면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처럼 인지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지적인 것과 의도, 그리고 정적인 면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개념인 것이다(이정모 외, 1999, 16-17 참조; Strube ed. 1996).

관계는 모사적이 아니라 은유적 이거나 지표적으로 연결되어 내적 유사성을 갖는다. 이처럼 인지적 차원에서는 상징적 표상과 은유·지표적 표상이 통합되어 나타나고, 이 과정에서 기호로서 상징은 대상을 외재적 혹은 내재적 방식으로 재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대상과 기호의 유사적 재현 관계는 상징적 재현을 통하여 인지적 차원에서도 여전히 내적으로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뇌의 신경학적 표현

인지가 의식적이고 표상적 방법에 기반하는 반면에 뇌의 신경학적 표현⁹⁾은 비의식적이고 비표상적 방식을 토대로 한다. 인지적 표상과 신경학적 표상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이 두 가지 방식들은 상호간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인지적 표상은 총체적인 신경학적 표현이 표층, 뇌의 신경학적 단계의 상층부의 단계에서 드러난 것으로(Smolensky, 1988), 이를 기반으로 인지기호가 생성된다. 이처럼 외재적 상징으로 인지기호는 내재적 상징과 연관되며, 내재적 상징조작을 토대로 한다(Goschke, 1990 참조). 또한 인지기호의 수행은 역으로 뇌신경체계에 생산적 메타포로 작용하기도 한다(Peschl, 1989).

뇌의 신경학적 표현은 비표상적으로 뇌의 신경학적 단계의 하부층에서 나타난다. 비표상은 국부적 비표상과 분산(병렬적) 표상으로 구분되는데(Rumelhart & McClelland, 1996), 전자는 콘셉트 형성의 토대로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상징)기호들의 표상적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가치 벡터(Vector)의 형태로 구현된다. 국부적 비표상인 신경망의 각 뉴런에는 의미론적 콘셉트가 부여되어 있다. 신경망이 활성화 되면서 비표상적인 콘셉트가 생기는데, 각각의 뉴런들은 자연언어의

9) 뇌의 신경학적 재현은 단순히 모방이나 모사의 차원을 넘어서 운동성을 기반으로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 논의에서는 신경학적 재현 대신에 신경학적 표현을 택하였다.

상징과 유사한 표기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에 신경적 단계의 병렬(분산) 표상에서는 어떤 개념이 각 뉴런들의 개별적 활성화에 의해서 지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기반으로 구성되는 신경망의 활성화 유형을 기반으로 한다. 여기서 각 뉴런 그룹의 활성화는 기존의 의미론적 방식으로 파악되지 않고, 활성화된 전체 뉴런 그룹의 개념은 모든 뉴런들로 전달된다. 따라서 하나의 뉴런은 여러 개념의 표상에 관여하기 때문에 표상 대상과 표상된 개념간의 관계는 블랙박스 속에 놓이게 된다. 이처럼 분산적 비표상은 뇌의 신경학적 표현의 토대가 되는데, 매우 복잡한 신경망들의 작용에 의해서 생기는 일종의 벡터 패턴으로 나타난다.

이 같은 전체 뉴런 네트워크의 융합적 작용을 기반으로 한 개념의 벡터 값이 산출됨으로써 신경기호가 생성된다. 여기서 신경기호는 뉴런 단계에서 생성되는 기호로 기의와 기표가 동일한 기호적 특성을 갖는다. 즉 기의가 기표이고 기표가 기의인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에서의 재현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이러한 기호는 기존의 기호 기능과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논의에서는 기존의 기호와 차별화하여 잠정적으로 신경기호라고 하였다. 뇌의 신경기호는 퍼스 기호학적으로 보면 표상체(Representamen)와 해석체(Interpretant)가 분리되지 않고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호와 그 의미가 생각의 형태로 있으면서 생각은 동시에 기호로 재현될 수 있게 된다.¹⁰⁾

또한 기호학적으로 보면 신경학적 표현 단계에서는 신경기호를 표상화하는 코드가 없어 신경 기제의 코드로 바뀌지 않고 뉴런 네트워크 단계로 직접 ‘프로그램화’ 된다. 이 구조화된 벡터들의 총체적 위상으로 표현되는 이 재현 모델은 엄밀한 의미에서 명제에 기반한 의미론이나 수행에 기반한 문장론의 결과로 파악 되지 않고 신경망의 맥락에 의해 좌우된다.¹¹⁾

10) 이와 관련하여 사고와 생각의 재현을 생각해 보면, 생각은 뉴런 네트워크에서 ‘패턴’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사고는 ‘신경 네트워크 패턴’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V. 맺음말

재현은 우리가 세상과 관계 맺는 일종의 방식이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변화되고 그것은 재차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변화시킨다. 변화된 현실은 대상과 이를 매개하는 기호 관계를 변화시킨다. 이런 변화의 내면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유사성이다. 유사성은 원상과 기호로 재현된 상과의 재현적 관계를 나타내는데 모사 혹은 모방을 기반으로 한다. 이 모방은 인간이 지닌 상위 기능적 능력들에 공통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단순히 유사성을 만들어내는 특별한 능력을 넘어서 표현에까지 이르는 능력이며 근원적으로 미메시스와 연결되어 있다. 미메시스는 모방이나 재현에 의해서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미메시스적인 존재라고 볼 수도 있다. 정리하면 인간의 모방적 본능은 생물학적 DNA로 재현의 토대가 되며, 모방적 본능과 기호를 기반으로 자연성을 인위성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상과 기호의 유사 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이 변화하면 새로운 유형의 기호가 나타나게 된다.

재현에서 모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재현에 대한 해석은 달라지고 이 문제는 결국 기호학을 기반으로 언어(기호)학이나 철학적 기호학의 문제가 된다. 재현에서 표상에 이르는 철학적 기호학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재현은 대상과 기호가 이미지의 모방 혹은 모사에 의한 것이든, 지시나 지칭에 의한 것이든 모두 이성적인 토대를 기반으로 한다. 이 이성적 토대가 붕괴하면서 탈재현적 상태가 도래된다. 탈재현은 기호가 지시대상과 연결점의 이성적 토대를 상실하면서 기호의 의미가 증발하고 기호의 기표만 남는 데서 비롯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시 대상과 기호를 감성적인 토대를 기반으로 연결시키려는 시도, 즉 감성을 기반으로 하는 감성적 모사의 관점이 나타난다. 대상과 이를 재현하는 기호의 관계가

11) 이러한 모델을 기호범주이론(semiotic category theory)이라고 한다.

인지적 차원으로 내재화되면서 재현이란 용어 대신에 표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 표상은 재현된 상이 인지적으로 상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상은 의식 작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실제로 대상이 그대로 우리의 머리 속에 들어와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인지가 (범주나 패턴을 기반으로) 실제 대상을 어떤 상징이나 다른 형태로 다시 재현하고 추상화함으로써 생긴다. 즉 실제의 대상이 아니라 재현되어 추상화된 것이 우리 의식 속에 상징화된 것이다. 이에 반해서 비표상은 분산 표상이라고도 하는데 비의식적으로 특징되며 뇌의 신경학적 표현과 연관된다. 이러한 분산 표상은 뉴런과 신경망을 기반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대상과 이를 다시 나타내는 기호적 관계가 신경학적 토대를 기반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뜻한다. 분산(병렬적) 표상에서 대상이나 상징은 개개의 뉴런들의 활성화에 의해서 지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기반으로 구성되는 유형이 만들어내는 뉴런들의 활성화 패턴과 신경망의 활성화 패턴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여기서 각 뉴런 그룹의 활성화는 의미론적 방식으로는 파악되지 않고, 활성화된 전체 뉴런 그룹의 개념트가 분산적으로 뉴런들로 전달되며 신경계의 작동 방식처럼 비표상은 일종의 벡터의 패턴으로 나타난다.

재현, 탈재현, 표상, 그리고 비표상의 관계를 살펴보면, 모사적 재현에서 구성적 재현, 즉 표현으로 진전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재현은 외부적 대상을 모사 혹은 모방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되다가 외적 대상의 재현이 내재화되면서 독립적인 상징을 생성하는 표상으로 발전되어 온다. 그러나 재현은 외적인 것을 모방하거나 혹은 외적 대상에서 독립한 내적인 표상체를 구성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재현은 근원적으로 미메시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모방적 재현과 재현적 표현을 아우르는 융합 개념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재현적 모방은 닮음을 위한 닮음, 즉 무엇인가에 대한 닮음인데 반하여 비표상적 모방, 즉 구성적 표현은 새로워지기 위한 닮음이고 배움으로서의 닮음이란 점에서 닮지 않은 닮음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현을 바라보는 시각도 모사나 모방 중심의

존재론적 관점과 표상 중심의 인식론을 넘어 이들을 극복하는 구성적 실재론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생산적이다(표 3 참조).

[표 3] 현실의 재현적 토대와 기호적 재현 도식

| 현실유형 | 현실 | 증강현실 | 가상현실 | 모의현실 | |
|---------|----------------|------------------------|--------|---------------|-----|
| 재현유형 | 재현 | 탈재현 | 표상 | 비(분산)표상 | |
| | | | 인지적 표상 | 신경학적 표현 | |
| 재현수단 | 모방, 모사, 지시, 지칭 | 상사, 현전, 비감각적 유사성, 알레고리 | 범주, 패턴 | 가치 벡터, 분산 컨셉트 | |
| 기호학적 토대 | 이성, 합리성 | 감성, 느낌 | 인지 | 뉴런 | 신경망 |
| 유사성 | 외적 유사성 | 내적 유사성 | | | |
| 철학적 토대 | 존재론 | 현상학이론 | 인식론 | 구성적 실재론 | |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점에서 의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재현과 표상을 미메시스를 기반으로 융합함으로써 고대 그리스의 미메시스 개념을 현대적인 시각에서 재해석을 시도한 점이다. 이러한 작업 결과는 현실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호의 재현 방식과 그 토대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미메시스가 어떻게 인간화되고 실현되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실제적인 활용 면에서 이 연구 결과가 주는 의의는 다양한 현실들의 재현 전략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시사점을 준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실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오늘 날의 현실들 속에서 대상과 기호가 어떤 방식으로 유사성을 창출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창의적인 표현 계발에도 유용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보인다.

참고문헌

- 모기 켄치로 저, 손성에 옮김, 『뇌와 가상』, 양문, 2004.
- 박연규, 「퍼스 기호학에 있어 도상 기호 icon의 재현성-Jeseph Ransdell을 중심으로」, 『기호학 연구』 Vol. 16,, 2004, 219~242쪽.
- 신승환, 「재현의 위기 시대의 인간의 실존」, 『문학과 경계』 2004년 봄호, 2004, 1~8쪽.
- 신항식, 「재현의 기호학적 이해와 형상적 미술론」, 『미학·예술학 연구』 22호, 2005, 157~192쪽.
- 이도흠, 「현실의 재현과 진실 사이의 거리」, 『문학과 경계』 2004년 봄호, 9~21쪽.
- 이정모 외, 『인지 심리학』, 학지사, 1999.
- 이주영, 「재현의 관점에서 본 예술과 실재의 관계」, 『미학·예술학 연구』 22호, 2005, 5~38쪽.
- 채운, 『재현이란 무엇인가?』, (주) 그린비, 2009.
- 최연희, 「재현」, 미학대계간행회, 『미학의 문제와 방법, 미학 대계 2권』, 서울대출판부, 2007, 225~240쪽.
- Aristoteles, 천병희 옮김, 『시학』, 문예출판사, 2002.
- Barck, K. (Hrsg.), *Ästhetische Grundbegriffe*, Bd. 5, Verlag J. B. Metzler, Stuttgart, 2003, pp.264~267.
- Benjamin, W., 최성만 옮김, 『미메시스의 능력에 대하여, 언어 일반과 인간의 언어에 대하여 번역자의 과제 외 발터 벤야민 선집 6』, 길, 2008.
- _____, Über das mimetische Vermögen, Lehre vom Ähnlichen, *Gesammelte Schriften*. Bd. II-1, S. 205-213, Suhrkamp, 1977.
- _____, 반성완 편역, 『발터 벤야민의 문예 이론』, 민음사, 1983.
- Deleuze, G. & Félix Guattari, *Qu'est-ce que la philosophie?*, 1991, 이정임·윤정임 옮김, 『철학이란 무엇인가』, 현대미학사, 1999.
- Deleuze, G., Francis Bacon : *Logique de la sensation* (2 vol.), 1981, 하태환 옮김, 『감각의 논리』, 민음사, 1995.
- Derrida, J., *Mimesis : des articulation*, Aubier - Flammarion, 1975.
- Else, Gerald. F., 'Imitation' in the Fifth century, *Classical Philology*, 제53권, 제2호 (1958), 73~90.
- Foucault, M., 김현 옮김,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민음사, 1995.
- Gombrich, E. H., *Art and illusion, a study in the psychology of pictorial representation*, 1960, 차미례 옮김, 『예술과 환영: 회화적 표현의 심리학적 연구』, 열화당, 2002.

- Goodman, N., *Language of art: An approach to a theory of symbols*, 1968, 김혜숙 · 김혜련 옮김, 『예술의 언어들: 기호이론을 향하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 Goschke, Th., 「Wissen ohne Symbol? Das Programm des Neuen Konnektionismus」, *Zeitschrift fuer Semiotik*, 12/1990(1-2), pp.25~45.
- Johnson-Laird, P. N., *How Meaning Mentally Represented*, Eco, U. et al., *Meaning and Mental Representation*, Bloomington: Indiana Univ. Press, 1988, pp.99~118.
- Jorna, R. J., *Signs, Search and Communication*, Berlin: de Gruyter, 1989.
- Kandinsky, *Über das Geistige in der Kunst*, 1912, 권영필 역, 『칸딘스키,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1995.
- Klaus, G. & M. Buhr, *Philosophisches Wörterbuch*, Berlin, 1972.
- Líszka, J., *A General Introduction to the Semiotic of Charles Sanders Peirce*, 1996, 이윤희 옮김, 『페르스 기호학의 이해』, 한국 외국어대학 출판부, 2013.
- Palmer, St. E., *Fundamental Aspects of Cognitive Representations*, Rosch, E. & B. B. Lloyd(Eds.), *Cognition and Categorization*, Hillsdale(NJ): Lawrence Erlbaum, 1978, pp.28~49.
- Platon, 천병희 옮김, 『국가』, 숲, 2013.
- Peschl, M. F., 「Semiotic Aspects of Neurally based Representation of Knowledge」, Jorna, R. J. (ed.), *Signs, Search and Communication*, Berlin: de Gruyter, 1989, pp.90~112.
- Nöth, W., *Handbuch der Semiotik*, 2rd. Ed., Stuttgart: Metzler, 2000.
- , *Crisis of Representation?*, in: *Semiotica*, 143 (1-4), 2003, pp.9~15.
- Rumelhart, D. E. & J. L. McClelland, *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 Explorations in the micro-structure of cognition*, The MIT Press/ Bradford Books, 1996.
- Savan, D., *Decision and Knowledge in Peirce. Transactions of the Charles S. Peirce Society 1 (2)*, 1965, pp.35~51.
- Smythe, W. E., *Wie sind die Symbole interpretiert? Representation bei Frege und Peirce*, *Zeitschrift für Semiotik*, 12/1990(1-2), pp.47~62.
- Smolensky, P., 「On the proper treatment of connectionism」, *Behavioral and Brain Science*, 11/1988, pp.1~74.
- Strube, G., *Wörterbuch der Kognitionswissenschaft*, Stuttgart: Klett-Cotta, 1996.
- Thagard, P., *The brain and the meaning of life*, 2010, 김미선 옮김, 『뇌와 삶의 의미』, 필로소픽, 2011.

Change of representation paradigm in the light of semiotic consideration

Jo, Chang-Yeon

This paper aims to explain paradigm changes related to representation, approaching the problem of representation and de-representation through the lens of semiotics. Traditional semiotics explains representation as imitation and replication, based on a metaphysical paradigm. On the other hand, post-structural semiotics explains de-representation, based on emotions and feelings, through the concept of similitude and presence. The former underlines external similarity between objects and signs, while the latter emphasizes internal similarity. When the representation paradigm is transformed to one focused on epistemology, representation is developed and falls into two categories: the cognitive and the neuron-based non-representational. Whereas cognitive representation is revealed through neurologically non-represented categories, patterns are distributed through vector values and emergent networks consisting of vector values. This change in the representation paradigm shows that attempts to determine similitude between objects and signs has moved from the external to the internal.

Keywords : representation, resemblance, mimesis, semiotics of representation, representation paradigm, neural representation.

투고일 : 2018. 05. 21. / 심사일 : 2018. 06. 08. / 심사완료일 : 2018. 06. 13.